

退溪易學初論

呂紹綱*

• 目 次 •

- | | |
|------------------------------|------------------------------------|
| 1. 서론 | 5. 《易》의 이치를 융합하여 실천에 이용함. |
| 2. 朱子를 계승하였으나 朱子와는 다른 점이 있음. | 6. 太極은 理요 陰陽은 氣이며, 理가 먼저이고 氣는 나중임. |
| 3.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음. | 7. 결론 |
| 4. 《啓蒙》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정확한 인식. | |

1. 서론

세계적인 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은 대학자라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賢人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 듯 하다. 학자는 대부분 '爲人之學'에 힘을 쏟아 밖으로 立身揚名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철저하게 학문에 정진할 겨를이 없지만, 그는 부지런히 聖賢의 '爲己之學'에 힘을 쏟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평생 실천에 뜻을 두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의 학문은 "규모가 매우 커서, 차라리 성인을 배워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기예·한 가지 행동으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規模甚大, 寧學聖人而不至, 不欲以一藝一行成名.)"¹⁾ 본래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비록 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귀중하겠는가?(學不踐履, 雖有所知, 奚貴.)"라고²⁾ 스스로를 독려했었다. 儒家 聖賢의 책을 읽음에, "경전·제자서·역사서를 두루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젊어서부터 四書五經에 힘을 쏟았으니, 특히 四書와 《易經》에 침잠하여 왕왕 다 외우고도 틀림이 없었다.(經傳子史靡不博觀, 然自少用力于四書五經, 而于四書·易經爲尤深, 往往皆背誦不差.)"³⁾ "20세에 《周易》을 읽고 그 뜻을 강구함에 거의 침식을 잊을 지경이었다.(二十歲讀《周易》, 講究其義, 殆忘寢食.)"⁴⁾ 19세에 《性理大全》을

* 중국 길림대학교 교수

1)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181

2) 《李子粹語》 권2, 《全集》 제7책 p.201

3) 《退溪先生言行錄》 권6, 《全集》 제18책 p.343

4) 《退溪先生年譜》, 《全集》 제19책 p.176

읽고 스스로 말하기를 “《性理大全》 중의 〈太極圖說〉은 곧 내가 깨우쳐 입문한 곳이다.(《性理大全》中〈太極圖說〉乃吾所啓發入頭處)”라고 하였고,⁵⁾ 〈太極圖說〉을 읽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것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젊어서 이것으로써 입문하였기 때문이다.(吾之告人必以此先之者, 吾初年由此入故耳.)”라고 하였다.⁶⁾ 53세(癸酉年, 1553년) 이후에는 “검하여 象數學을 연구하니, ‘朱子の 《啓蒙》은 象數學의 祖宗으로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깊이 연구하고, 그 원류를 철저히 궁구하여 《啓蒙傳疑》를 지으니, 도리를 충분히 천명하고 설명하여 거의 남김이 없었다. 만년에는 대부분 《啓蒙》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다.(兼治數學, 謂朱子《啓蒙》一書乃數學之祖, 而多有未解處. 玩索多年, 洞究其源乃著《啓蒙傳疑》, 發揮分解, 殆無餘蘊. 晚年多以《啓蒙》授學者.)”⁷⁾ 57세에 《啓蒙傳疑》를 짓고 〈自序〉에서 대강 말하기를, “義理와 象數의 학문은 넓고도 미묘하여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책에서 나온 말이 많으니 반드시 상고하여 의논한 후에야 그 뜻의 갈래를 알 수 있고, 깊고 오묘한 뜻에 이르면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전해진 부분은 바로 잡지 않을 수 없고, 더하고 더는 법을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혹 생각한대로 들어맞음이 있거나, 혹 옛 것을 考據한 내용에 증거가 있으면, 손가는 대로 조목별로 기록하여 고찰하고 열람하기 편리하게 하였다.(理數之學廣博微妙, 未易研究, 或出幽經僻書, 必須考論而後見其義類, 至于隱奧之義有不得不明, 傳印之訛有不得不正, 乘除之法又不可不詳, 或因思而有契, 或考古有證, 不免隨手札記, 以便考閱.)”라고 하였다.⁸⁾ 68세에 임금께 《周易》의 乾卦를 강의하였고,⁹⁾ 70세에 〈岩栖에서 《啓蒙》을 읽으며 제군에게 보여준 두 수〉(岩栖讀《啓蒙》示諸君二詩)의 시에서, “늙은이에 《주역》 글을 거듭거듭 尋繹하며, 얼마나 많은 틀림 함께 닦아 없었는가. 이택(麗澤)이 유익함을 이제 더욱 알았으니, 先天이란 하나의 太虛임을 엿보았네.(白首重尋易學書, 幾多疏誤共修除, 方知麗澤深滋益, 覩到先天一太虛.)” “산중살이 70년에 다시 산이 사랑스러워, 하늘·마음·《주역》·패상 고요히 살펴보네. 한 내의 바람달을 한가로이 관리하며, 속세라 온갖 일은 함부로 간여마소.(七十居山更愛山, 天心易象靜中看, 一川風月須閑管, 萬事塵埃莫浪干.)”라고 하였다.¹⁰⁾

퇴계는 “차라리 성인을 배워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기예·한 가지 행동으

5)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364

6)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213

7) 《退溪先生言行錄》 권6, 《全集》 제18책 p.343

8) 《退溪先生年譜》, 《全集》 제19책 p.200

9) 《退溪先生年譜》, 《全集》 제19책 p.233

10)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517

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학자로서, 《易》을 배우고 《易》을 강론하며 《易》을 서술한 것은 전적으로 실천을 위한 때문이며, 聖賢의 표준에 의거하여 자신을 연마한 까닭에 절대로 자구상의 드러난 표면적인 공부에 머무르지 않았을 뿐더러 術數·占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易》으로써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는 易學 전문가의 명성을 지니지 않은 진정한 易學大家였던 것이다.

필자는 啓明漢文學硏究會에서 간행한 《退溪學文獻全集》23권을 꼼꼼하게 읽고 난 뒤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새삼 퇴계의 易學이 이렇게 깊이있고 탁월하며 전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에 非才를 무릅쓰고 몇 가지 방면에서 다음과 같이 의론하고자 하니, 大家들을 가르침을 바란다.

2. 朱子를 계승하였으나 朱子와는 다른 점이 있음.

퇴계의 학문은 한결같이 朱子(1130~1200)를 宗主로 삼았는데, 자신이 일찍이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朱子는 나의 스승이다. 朱子의 말씀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고, 朱子의 행동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 움직이고 머무르며, 말하고 행동하며,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며, 나아가서 일을 행하고 물러나서 은둔하는 모든 일에 오직 朱子만을 좇는다. 朱子를 비록 볼 수는 없으나 朱子의 道가 여기에 있다.(朱子吾之師表也, 非朱子之言不敢言, 非朱子之行不敢行, 而動靜云爲出處行藏唯晦庵是循, 晦庵雖不得見, 而晦庵之道在茲焉.)”라고 하였다.¹¹⁾ 易學 방면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朱子는 《太極圖說》을 중시하였는데 퇴계 또한 그것을 중시하였다. 朱子는 邵康節(1011~1077)을 존중하였는데 퇴계 또한 그를 존중하였다. 朱子는 聖人이 河圖·洛書에 의거하여 八卦를 그었다고 믿었는데 퇴계 역시 그렇게 믿었다. 朱子가 《啓蒙》을 지으니 퇴계는 《啓蒙》을 깊이 연구하여 《啓蒙傳疑》을 지었다. 따라서 퇴계의 易學은 朱子에서 시작되었고 朱子를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나 퇴계의 학문은 스스로 체득함을 귀히 여겼으니, 《易》에 대해서도 자신의 體悟가 있었으며, 실제로 朱子의 易學思想에 대해서도 결코 전적으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을 거친 까닭에 서로 차이점이 있다.

우리들은 朱子가 程子(1033~1107)의 《易傳》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本義》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朱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伊川易傳》은 또한 程子 자신의 易이다.(《伊川易傳》, 又自是程氏之易

11) 《溪山記善錄》 下, 《全集》 제18책 p 472

也.)”라고 하였고,¹²⁾ 또 말하기를 “나는 소강절의 易을 다 보았지 다른 사람의 易은 보지도 않았다.(某看康節易了, 都看別人的不得.)”라고 하여¹³⁾ 분명하게 程子の 《易傳》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었다. 퇴계는 20세에 《易》을 읽고 그 義理를 강구하여 침식을 잇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누구의 《易》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퇴계 본인이 종래 밝힌 적이 없기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당시 퇴계가 읽은 것은 朱子の 《本義》는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으니, 왜냐하면 퇴계가 후에 “易을 읽음에 《本義》부터 먼저 읽을까 생각했는데 이 또한 내가 종래 본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世儒 중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자는 자연 드무니, 비록 간간히 있다 하더라도 모두 講業에 얽매어 과감하게 버리고 취하지 못하였다. 내가 바야흐로 읽을 당시에는 世儒들이 얽매인 것과 같았으나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부터는 병이 들어 읽을 수 없었다. 《本義》를 주로 하면서 겸하여 《程傳》을 읽음으로써 옛날의 깨끗하고 정미함으로 되돌리고, 오늘날의 높고 명석함에 기대한다.(讀易欲以《本義》爲先, 此亦混從來所見如此. 世儒慮及此者自少, 雖或有之, 皆牽于講業而未果去取. 混則方其讀時同于世儒之牽, 及見得此意後, 皆病不能讀. 主《本義》兼《程傳》以還潔淨精微之舊, 正有望于高明之今日也.)”라고 하였기 때문이다.¹⁴⁾ 그가 당시에 일찍이 《本義》를 읽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병이 들어 읽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程傳》에 대한 태도는 여기에서 “《本義》를 주로 하면서 겸하여 《程傳》을 읽는다(主《本義》兼《程傳》)”고 하여, 그가 《程傳》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 번은 임금께서 “《程傳》과 《本義》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程傳》·《本義》何爲先?)”라고 묻자, 퇴계는 마침내 “易의 道는 밝아서, 사라지고 불어나며 차고 텅비는 이치와 나아가고 물러나며 말하고 침묵하는 기틀이 때의 적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점을 쳐서 알아보는 것은 易의 말단이니 《程傳》이 마땅히 먼저입니다.(易之道明消長盈虛之理·進退語默之機不失乎時中也. 占侯, 易之末也. 《程傳》宜先.)”라고 대답하였다.¹⁵⁾ 즉, 《易》에서 義理가 근본이요 占은 말단이며, 《易》을 배움에 있어서도 주로 마땅히 《易》의 義理를 배워서 때의 적절함을 파악해야 하며, 占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程傳》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易》을 배움에는 마땅히 《程傳》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朱子와 다른 점이다. 필자가 이로 말미암아 추측컨대, 퇴계가 20세에 읽기 시작한 《주역》은 《程傳》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또한 추측일 뿐 분명한 증거는 없다.

12) 《朱子語類》 권67,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45 인용. 臺灣三民書局, 1989년 3판.

13) 《朱子語類》 권67,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47 인용.

14) 《退溪先生書節要》 권6, 《全集》 제6책 p.642

15) 《陶山及門諸賢錄》 권3, 《全集》 제20책 p.280

朱子は 누차 강조하여 말하기를 “易은 卜筮의 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卜筮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王弼이 老莊을 이용하여 풀이한 뒤로부터 사람들은 곧 理로 여기고 卜筮로 여기지 않았으니 이 또한 옳지 않다. 오늘날 사람들은 卦辭와 爻辭는 보지도 않고 <계사전>만 보니 이것은 마치 刑統은 보지 않고 刑統의 순서만 보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반드시 卜筮의 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易本卜筮之書, 後人以為止于卜筮. 至王弼用老莊解後, 人便只爲理, 而不以為卜筮, 亦非. 今人不看卦爻而看繫辭, 是猶不看刑統, 而看刑統之序例也, 安能曉, 須以卜筮之書看之.)”라고 하였다.¹⁶⁾ 또 말하기를 “근자에 <易>를 말하는 자들은 줄곧 卜筮를 버리고 易의 義理만을 허황되게 말하며, 글의 뜻을 억지로 끌어들이 귀착됨을 없게 하니, 이러한 폐단은 오래되었다. 모름지기 먼저 卜筮·占決의 뜻으로써 經文의 本義를 구하고 다시 주석서로 해석해야 한다.(近世言<易>者, 直棄卜筮而虛談易理, 致文義牽強而無歸宿, 此弊久矣. 要須先以卜筮占決之意求經文本義, 而復以傳釋之.)”라고 하였고,¹⁷⁾ 또 말하기를 “역은 본래 卜筮를 위해 지어졌으니, 그 말은 모두 象數에 의거하여 길흉을 판단한 것이다. 지금 그 법도가 이미 전해지지 않고 諸儒들이 象數를 말한 것은 그 예가 모두 건강부회한 것이다. 義理를 말한 자들 또한 너무 허황하여 그들의 책은 읽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本義>와 <啓蒙>이 지어진 까닭이다.(易本爲卜筮而作, 其言皆依象數, 以斷吉凶. 今其法已不傳, 諸儒之言象數者, 例皆穿鑿. 言義理者又太汗漫, 故其書爲難讀. 此<本義>·<啓蒙>所以作也.)”라고 하였다.¹⁸⁾ 또 말하기를 “<易>을 읽는 방법에 대하여, 삼가 생각해보니 卦辭와 爻辭는 본래 卜筮로 길흉을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훈계하기 위한 것이다. 象辭·象辭·文言傳이 지어진 것은 처음에 그 길흉과 훈계의 뜻에 따라서 그 義理를 미루어 설명하고 다시 밝힌 것이다. 후인들이 단지 공자가 말한 義理만을 보고 다시 문왕·주공의 本義를 미루어 구하지 않았으며, 卜筮를 비루하다 하여 말할 것이 못된다고 여겼다.(讀<易>之法, 竊疑卦爻之詞, 本爲卜筮者斷吉凶, 而因以訓誡. 至象·象·文言之作, 始因其吉凶訓誡之意而推說其義理而明之. 後人但見孔子所說義理, 而不復推求文王·周公之本意, 因鄙卜筮爲不足言.)”라고 하였고,¹⁹⁾ 또 말하기를 “象數는 곧 <易>을 지은 근본이며, 卜筮는 곧 그 사용되는 곳의 실체이다.(象數乃作<易>根本, 卜筮乃其用處之實.)”라고 하였으며,²⁰⁾ 또 말하기를 “대저 <易>은 본래 卜筮를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말은 반드시 象數에 뿌리를 두어야 하니, 성인의 뜻이 그런 것

16) <朱子語類> 권66,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0 인용.
 17) <朱子文別集> 권3,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1 인용.
 18) <朱子文集> 권60,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2 인용.
 19) <朱子文集> 권33,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8 인용.
 20) <朱子文集> 권45,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35 인용.

이다.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또한 점을 쳐서 이卦 이 爻를 얻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근래에 《易》을 말하는 자들은 거의 이것을 알지 못하니 그런 까닭에 그 說이 비록 義理는 있지만 情理가 없다. 비록 大儒라 하더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大抵《易》之書，本爲卜筮而作，故其詞必根于象數，而聖人已意之所爲，其所勸誡，亦以施諸筮得此卦此爻之人，近世言《易》者殊不知此，所以其說雖有義理而無情理，雖大儒先生在所不免。)라고 하였다.²¹⁾ 따라서 朱子의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니, 첫째 《易》은 본래 卜筮 때문에 지어졌으며, 본래 卜筮의 책이다. 둘째 象數는 《易》을 만든 근본으로, 《易》이 실제 사용되는 곳이 바로 卜筮이다. 卜筮를 경시하여 말할 것이 못된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卦辭와 爻辭는 본래 점치는 사람이 길흉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어낸 것이다. 공자의 《易傳》은 卦爻辭로 판단한 길흉과 훈계의 뜻에 따라서 그 義理를 미루어 설명하고 밝힌 것이다.

이제 《퇴계학문헌전집》을 살펴보니, 퇴계가 《易》은 본래 卜筮를 위해 지어졌으며, 《易》은 본래 卜筮의 책이라고 말한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 퇴계는 도리어 매우 긍정적으로 “《易》은 바로 義理와 象數의 연원을 규명한 책이다. (《易》乃理數淵源之書.)”라고 하였다.²²⁾ 《易》은 義理와 象數의 연원을 규명한 책이라고 말한 것과 《易》은 본래 卜筮의 책이라고 말한 것은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퇴계는 “《易》은 바로 義理와 象數의 연원을 규명한 책으로, 진실로 읽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논어》·《맹자》·《중용》·《대학》 처럼 학자들이 매일 공부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지는 않다. 그런 까닭에 先人들은 간혹 ‘급히 배워야 할 것이 아니니, 실제로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하는 학문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비록 아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귀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긴절한 말이다. 《易》을 읽을 때에 진실로 이러한 뜻을 소홀히 한다면 점점 義理와 서로 관련되지 않고 나날이 멀어지게 되니 심히 걱정할 만 하다. (《易》乃理數淵源之書，誠不可不讀，但不如語·孟·庸·學之切于學者日用工夫，故先正或以爲‘非學之急，其實莫及于窮理盡性之學也。’所謂學不踐履，雖有所知，奚貴？此真切至之言，讀《易》時苟忽此意，浸與義理不相交涉而日遠矣，甚可懼也.)”라고 하여²³⁾ 일체의 학문은 모두 실천하기에 유리한지의 여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으며, 그런 까닭에 그는 학자들에게 절실한 나날의 공부는 《易》이 四書만 못하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易》 가운데는 義理도 있고 象數도 있지만 義理가 지극히 중요하니, 《易》을 배움에 단지 象數에만 주의하고 義理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조금의

21) 《朱子文集》 권38,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인용.

22) 《退溪先生書節要》 권6, 《全集》 제6책 p.618

23) 《退溪先生書節要》 권6, 《全集》 제6책 p.618

의의도 없으니 걱정할 만 하다. 그러나 朱子는 《易》을 의론하고 《易》을 배움에 있어서는 象數와 卜筮를 첫 자리에 두었다.

퇴계는 이론적으로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卜筮를 반대하였다. 퇴계의 卜筮에 관한 구체적인 언행을 살펴보자.

“占筮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은 또한 蓍草도 나지 않고 점치는 방도 짓기 어려우며 더럽고 망령된 것으로 신명께 알릴 수도 없으니, 비록 그 說을 알고 그 방법을 궁구하나 일체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于占筮則曰今也筮草不生, 占筮難立, 不可以褻妄交神明, 雖知其說·究其道, 而一切不爲.)”²⁴⁾

“선생께서는 卜筮의 일에 대하여 비록 그 說은 알고 있지만 또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先生于卜筮之事, 雖知其說, 亦不喜爲之.)”²⁵⁾

“무당의 사악하고 망녕됨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선생께서 대답하기를 '이 말은 매우 좋다. 그러나 義理를 궁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되지 않음을 보존할 수 없게 될 뿐이다.라고 하였다.(問巫覡邪妄豈可信哉! 先生曰此言甚善, 但不能窮理未必能保其不惑耳.)”²⁶⁾

“무당이 기도하는 일은 일체 엄금하여 집안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巫覡祈禱之事, 一切嚴禁不接門庭)”²⁷⁾

위의 내용으로 보아 퇴계는 비록 점치는 방법을 알았지만, 단호하게 점을 믿지 않았으며 나아가 점도 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민간에 유행하던 사주팔자를 이용하여 수명을 헤아리는 일에 대해서도 또한 심히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어머니 몸 속에서 10달을 있으면서 형질과 심성이 두루 갖추어진 뒤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찌하여 처음 胎膜과 胎盤을 받을 때에 五行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착하고 악하며, 순수하게 잡되며, 수명이 길고 짧은 조짐이 아직 정해지지 않다가, 태어나는 잠깐 동안에 들어가서 그가 앞서 품부받은 것을 모두 변화시키고, 이제 갑작스레 들어가 바뀐 것으로써 이 사람이 어질 지 어리석을 지 귀할 지 천할 지 오래살 지 일찍죽을 지를 결정한단 말인가? 아마도 이러한 이치란 없을 것이다.(人之在母十月, 形質心性靡不該具而後生出, 是豈初受胞胎時五行未備, 清濁粹駁壽命通塞之兆都未有定, 至于生出日時俄頃之間方始來植襲入, 都變了他前所稟得底, 以今所襲換者爲此人賢愚貴賤修短之所定乎? 似無此理.)”라고 하였다.²⁸⁾ 이는 곧 사람이 태어날 때의 年·月·日·時의 팔자로써 일생의 운명을 헤아린다는데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퇴계는 朱子の “《易》은 본래 卜筮의 책이다”라고 한 말이 틀렸다고 한 적이

24) 《溪山記善錄》, 《全集》 제18책 p.479

25) 《溪山記善錄》, 《全集》 제18책 p.420

26) 《溪山記善錄》, 《全集》 제18책 p.421

27) 《退溪先生言行錄》 권5, 《全集》 제18책 p.287

28)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142

없다. 그러나 그가 “《易》은 義理와 象數의 연원을 규명한 책이다.(《易》乃理數淵源之書)”라고 말함으로써 《易》에는 본래 象數도 들어 있고 義理도 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朱子の “《易》은 본래 卜筮의 책이다”라고 한 내용을 찬성하지 않았다.

程朱 두 사람의 易學에 관하여 퇴계는 제자의 물음에 답하면서 일찍이 “(程子·朱子) 두 선생은 모두 易學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이다.(兩先生皆有大功於易學者也.)”라고 하였으며,²⁹⁾ 程朱의 易學著作에 관하여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易書는 읽기 어렵습니다. 朱子께서도 이미 그것을 말하였으니 하물며 저와 같은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만 《程傳》에 따르고 《本義》에 따라 복희·문왕·주공·공자의 마음을 구하노니, 건강부회하여 말하지 않고 옛날의 깨끗하고 정미함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易書難讀, 紫陽先生已屬言之, 況我輩耶! 今但隨《傳》隨《義》求義文周孔之心, 不穿鑿爲說, 以返潔淨精微之舊.)”라고 하였다.³⁰⁾ 따라서 퇴계의 마음 속에는 程子와 朱子 그리고 그들의 저작에 대해 대등하고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程子와 그의 《易傳》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판적인 뜻이 없다. 이 점이 바로 程子の 《易傳》에 대한 朱子の 견해와 서로 다른 점이다.

3.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음.

퇴계는 비록 “《易》은 義理와 象數의 연원을 규명한 책이다.(《易》乃理數淵源之書)”라고 하여 ‘理數并重’의 관점을 지닌 듯 하지만 실제로는 도리어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기를 “목숨을 말하는 일 또한 어찌 그 이치가 없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聖賢은 義理를 중시하였지 象數를 중시하지는 않았다. 이치에 할 만한 것은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 단지 象數를 믿기만 한다면 재앙과 복이 도래하는 것이 일체 象數에 맡겨져서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되니 어찌 옳겠는가?(談命之事亦豈可謂無其理也. 但聖賢貴理不貴數, 唯理可爲者盡力爲之可矣, 若徒信數而已, 則禍福之來, 一切委之于數, 則無爲善之心矣, 奚可也!)”라고 하였으니,³¹⁾ 이는 ‘輕理重數’의 해독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洪應吉은 배움에 차이가 없을 수 없으니, 대개 象數學에는 깊었으나 義理에는 정통하지 못하여 또한 氣를 理로 인식하는 병폐가 많았다.……(洪應吉其學不能無差, 蓋深于數學而未精于理, 且多認氣爲理之病……)”

29) 《退溪先生年譜補遺》 小注, 《全集》 제15책 p.520

30) 《退溪先生書節要》 권5, 《全集》 제5책 p.531

31) 《退溪先生言行錄》 권5, 《全集》 제18책 p.287

라고 하였으니,³²⁾ 이는 象數에는 조예가 깊었지만 義理에는 깊지 못한 한 학자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서울 사람 金命元이 여기에 와서 易의 象數學을 읽었는데 비록 性理가 근원이고 玩養이 보조라고 생각하였지만 마음으로 하는 나날의 공부는 그렇게 가깝고 긴질하지 못하였다. 매일 數卦를 강구함에 바로 피로를 느껴 다른 책에 힘을 쏟을 정력이 없어 거의 함부로 날을 보냈다.(有漢城人金命元來此讀易象數之學，雖以爲性理之源·玩養之助，然於身心日用工夫不甚親切，每日講究數卦，便覺疲倦，無精力可及他書，殊浪過了日子.)”라고 하였으니,³³⁾ 이는 象數學에 빠져 헛되이 시간을 낭비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道에 뜻을 두고 배우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혹 象數學에 얽매이기도 하고 혹 理와 氣를 분변하는데 어둡기도 하다.……(吾東方則非無志道向學之士，而或拘于象數之學，或昧于理氣之分……)”라고 하였으니,³⁴⁾ 이는 당시 학술계의 일각에서 象數學에 얽매어 생각을 정교히 하고 힘써 실천하지 못하는 병통을 말한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易》에서 말한 象數란 《啓蒙》에서 인용한 몇 조목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 뜻을 이미 다 설파하였다. 학자들이 이 책에서 말한 象數를 이해하면 《易》 중의 象數는 모두 쓰임이 있을 따름이다. 《啓蒙》은 모두 〈繫辭〉의 공자 말을 인용하여 해석하였으니 그 말은 모두 象數이다.(《易》中所言象數，不過《啓蒙》所引數條而已，而其義已盡說破，學者曉得此書所說象數，則《易》中象數皆有用云耳。《啓蒙》皆引〈繫辭〉孔子言釋之，其言皆象數也.)”라고 하였으니,³⁵⁾ 이는 象數學에 하나의 범위를 정해준 것이다. 즉, 《易》의 象數는 단지 공자의 〈繫辭〉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주자의 《啓蒙》에서 말한 象數는 바로 공자가 말한 몇 조목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漢易의 ‘雜七雜八’에서 말한 象數를 일률적으로 象數學의 범주 밖으로 배제하였다. 퇴계가 《啓蒙》을 연구하면서, 納甲法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이 있는 것 외에 漢易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은 반드시 퇴계가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그가 설령 象數를 강구했다 하더라도 지적인 내용 또한 공자가 언급한 범위 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퇴계 자신이 易學을 연구하면서 종래 象數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이다. 후세 丁若鏞(1762~1836)은 《陶山私淑錄》을 지어 일찍이 “이 것으로써 마음을 오로지 하여 잡념을 가지지 않았던 선생의 공부를 엿볼 수 있다. 선생께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만약 象數學에 대하여 잠시라도 연구하였다면 어찌 미세한 분석일들 할 수 없었겠는가? 무릇 잠시 한

32) 《退溪先生言行錄》 권5, 《全集》 제18책 p.276

33) 《李子粹語》 권2, 《全集》 제7책 p.211

34) 《退溪先生年譜》，《全集》 제19책 p.263~264

35) 《溪門講義》 권4, 《全集》 제10책 p.312

쪽에 내버려 두고 달리 힘써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此可見先生主一無適之工也. 以先生精思密察之法, 苟於象數之學暫費研究, 豈不能毫分縷析! 蓋且置一邊, 殊無用力到底之意耳.)"라고 하였으니,³⁶⁾ 이는 정약용이 퇴계가 李仲久에게 답한 편지 중에서부터 깨달은 내용으로, 그는 퇴계가 象數學에 대해 실제로 "잠시라도 연구하지" 않았으며, "달리 힘써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나는 정약용의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퇴계가 象數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다면 義理에 대한 태도는 또한 어떠하였는가? 《退溪先生年譜》에 근거하면, "퇴계는 68세 되는 해 9월 乙卯日에 朝講에 入侍하였다.(退溪六十八歲九月乙卯入侍朝講)"라고 하였고, 小注에서 "《論語集注》를 講하다가 '《周易》을 배우면 길하고 흉하며 사라지고 자라나는 이치와 나아가고 물러나며 존속하고 멸망하는 道에 밝게 된다'는 구절에 이르러, 선생께서는 그 뜻을 미루어 넓히고 啓를 올려 아뢰기길 '64괘에 義理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잠시 乾卦로써 말씀드리자면'이라고 하였다.(因講《論語集注》至學易, 則明乎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先生推衍其義, 進啓曰 '六十四卦, 義理皆具, 姑以乾卦言之' 云云.)"라고 하였다.³⁷⁾

제자 禹景善(性傳)이 《易》의 '顯道神德行(도를 나타내고 德行을 신기롭게 한다)' 구절에 대해서 묻자, 그는 "덕행은 비록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기는 하지만 덕행이 되는 까닭이란 모두 《易》의 이치이다. 聖인이 《易》의 이치를 체득하였으니, 잠겨있고 나타나며 뛰어놀고 나는 것과 행동하고 그치며 오래하고 빨리하는 것이 모두 《易》의 차례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의한 뒤에 말하고, 이것을 논의한 뒤에 행동하니, 모의하고 논의하여 그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本義》에 '象을 보고 占辭를 완미하며, 변화를 보고 占을 완미하여 법으로 실행한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변화를 보고 占을 완미하여 법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易》의 차례를 체득하고 《易》의 이치를 체득하면 사람이 그 덕행을 신기롭게 하는 것이니 어찌 《易》의 象數 때문이 아니겠는가? 《易》의 象數는 占筮로써 드러나니 그런 까닭에 공자께서 卜筮의 방법에 밝아 이 말로써 마무리지으셨고, 주자도 또한 行과 數로써 그것을 신기하게 풀이하셨으니 아마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易》의 이치를 체득하고 《易》의 차례를 체득하면 신기하고 오묘하기가 견줄 바 없지만, 하찮은 데 집착하여 그 사이에서 고집부린다면, 이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으로 신기하지 않다.(德行雖人所做的, 所以爲德行皆《易》之理也. 聖人體《易》之理, 潛見躍飛行止久速皆《易》之序也. 故曰 '擬之而後言, 議之而後動, 擬議以成其變化'. 其《本義》曰: '觀象玩辭, 觀變玩占, 而法行之.' 夫觀變玩占而法行之, 而得《易》之序得《易》之理, 則人所以神其德行, 豈非因《易》之數乎! 《易》

36) 丁若鏞 《陶山私淑錄》, 《全集》 제23책 p.114

37) 《退溪先生年譜》, 《全集》 제19책 p.233

之數因占筮而見，故孔子贊卜筮之法而終之以此言，朱子又以行以數神釋之，恐不必爲疑也。得《易》理得《易》序則神妙無方，着一毫固必於其間，則是人爲硬做而不神矣。”라고 대답하였다.³⁸⁾

말하자면 占筮는 《易》의 數를 체현하며, 數 가운데는 理도 있고 序도 있으니, 사람들은 《易》의 理와 《易》의 序에 의거하여 행해야 하지 덜끝 만큼의 주관적 의지가 더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理와 序가 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易》의 數는 바로 天道의 자연스러움이다. 이러한 인식은 직접 주자에게서 체득하였다.

理와 數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말함에 반드시 邵雍·程頤·朱熹의 평가에 관련되어 있다. 일단 이 세 사람의 易學觀點에 대한 비교를 말하게 되면, 퇴계 자신의 易學方向은 곧 최후의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퇴계는 鄭子中이 보내온 이별 편지에 답하여 “邵康節의 術數를 二程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단지 미루어 헤아리고 미래를 알아보는 術數 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數學에 대하여 귀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이다. 대개 理가 있으면 氣가 있고, 氣가 있으면 數가 있는 법인데, 理는 氣를 버리고 홀로 행해질 수 없으니 또한 어찌 數를 버릴 수 있겠는가? 보내온 편지에서 이른바 ‘數가 어찌 理 밖의 일이겠는가?’라고 한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이치이니, 단지 理를 주로 하면 그 가운데 氣를 포함하게 되며, 간혹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도 利害를 헤아리지 않고도 일이 모두 바름을 얻게 된다. (그러나) 數를 주로 하면 정상적인 것은 진실로 또한 理가 그 가운데 들어 있게 되지만 변칙적인 것은 理에 부합하기가 드물게 되니, 비록 이익을 좇고 손해를 피하며 인륜은 그르치고 의로움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二程이 그의 術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術數로 인하여 末流의 폐단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일 따름으로, 邵康節이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河圖洛書가 理와 數의 근원이다’라는 데 이르러서는 聖人께서 《繫辭傳》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하였으니, 이러한 이치를 버리고서 《易》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二程이 邵康節에 대하여 이러한 이치를 아우르고 말하여 밝히지 않았으니 이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어찌 이러한 일이 천지 사이에서 (저절로) 드러났겠는가? 또한 기다린 뒤에 그렇게 된 것이니, 그러므로 邵康節의 재능이 홀로 체득하고, 朱子에 이른 뒤에 크게 발양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체득하여 더불어 듣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數를 주로 하면서 겸하여 理를 갖춘 邵康節을 배우고자 하나 (이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며, 이를테면 朱子는 理를 주로 하나 겸하여 數에도 밝았으니 또한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康節之術, 二程不貴, 非

38) 《溪門講義》 권4, 《全集》 제10책 p.372

獨指推算知來之術，只數學亦不以爲貴。蓋有理便有氣，有氣便有數，理不能遺氣以獨行，以亦何能遺卻數耶！來喻所謂數豈理外事者，正是如此。但主於理則包數在其中，其或有包不得處，不計利害而事皆得正。主於數，則其常者固亦理在其中；其變者則鮮合於理，而雖推利避害·賊倫滅義之事皆不憚爲之，此二程所以不貴其術也。然此特因其術而慮夫末流之弊必至於此耳，非謂康節爲然也。至於河圖洛書乃理數之原，聖人於〈繫辭〉既明言之，其不可舍此而學《易》明矣，而二程於康節并此而不與之講明，此則不可曉。豈此等事發明於天地間，亦有待而然，故康節才能獨得，而至朱子然後乃大闡發，使人人皆得而與聞之耶！然則學者欲學堯夫主數而能該理固難矣，如晦庵主理而兼明數，又安可不務哉！”라고 하였다.³⁹⁾

우리는邵雍의 易學은 象數를 주로 하여 특히 河圖洛書를 중시하였고, 程頤의 易學은 義理를 중시하여邵雍의 象數學과 河圖洛書에 대하여 줄곧 거들떠보지도 않았음을 안다. 朱子は 분명하게邵雍에게 기울어져 있고 程頤의 《易傳》에 대하여 자못 완곡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퇴계는 이 세사람의 大家에 대해 극도로 추앙하고 흠모하였으니, 程子가邵雍의 象數學과 河圖洛書를 거들떠보지 않은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고,邵雍이 象數를 주로 하면서 겸하여 義理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으며, 朱子가 義理를 주로 하면서 겸하여 象數에 밝은 것은 학자들이 마땅히 배워야 하며 또한 충분히 배워서 알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퇴계의 전면적인 易學에 관련된 언행으로 보면, 실제로 그는 程子의 방향—義理를 주로 함에 매우 근접하였으니, 겨우 공자의 “十翼”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象數를 언급하였던 것이다. 앞서 象數學이 옳다고 여기지 않은 퇴계의 여러 언급이 바로 그 증거이다. 퇴계는邵雍의 象數學과 河圖洛書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론상에 머물렀을 뿐으로, 그의 실제 易學에 관한 언행은 程子에 가까웠다. 생애의 후반부에 가서 朱子의 《啓蒙》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였으니 그것은 그가《啓蒙》에서 연구검토한 象數는 공자가〈繫辭〉에서 언급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퇴계가 象數學에 깊이 빠져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퇴계의 易學은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

4. 《啓蒙》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정확한 인식.

제자 鄭惟一(자는 子中, 호는 文峯, 1533~1576)이 지은 퇴계 선생의 《言行

39) 《退溪先生書節要》 권6, 《全集》 제6책 p.633

通述》에 “또한 ‘象數學이 義理의 밖에 있는 책이 아니다’고 하였다. 癸丑年(1553년, 53세) 이후로 겸하여 象數學을 연구하여, ‘朱子の 《啓蒙》은 象數學의 祖宗으로 이해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깊이 연구하고 그 원류를 철저히 궁구하여 《啓蒙傳疑》를 지으니, 도리를 충분히 천명하고 설명하여 거의 남김이 없었다. 만년에는 대부분 《啓蒙》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又謂數學非理外之書. 自癸丑以後兼治數學, 謂朱子《啓蒙》一書乃數學之祖, 而多有未解處. 玩索多年, 洞究其源, 乃著《啓蒙傳疑》, 發揮分解, 殆無餘蘊. 晚年多以《啓蒙》教授學者.)”라고 하였다.⁴⁰⁾

鄭惟一의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로부터 퇴계가 53세부터 《啓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생애의 전반부인 20세부터 읽기 시작한 《周易》은 《啓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象數學이 義理의 밖에 있는 책이 아니다’·‘계축년 이후로 겸하여 상수학을 연구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퇴계가 《易》을 배움에 있어 예로부터 줄곧 義理를 위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53세 전에는 아직 象數學을 연구하지 않았으며 53세 이후에야 象數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니 이 또한 ‘겸하여 연구한’ 것이다. 즉, 퇴계는 일생동안 일찍이 象數學을 첫 번째 자리에 둔 적이 없었다.

퇴계가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은 바엔 어째서 유독 《啓蒙》에 그토록 열중하였을까? 이것은 일찍이 자못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이니, 제자 禹景善(性傳)의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읽어보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는 “《易》에서 聖人이 말한 象數는 《啓蒙》에서 인용한 몇 조목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啓蒙》은 모두 〈繫辭〉의 공자 말을 인용하여 해석하였으니 그 말은 모두 象數이다.(《易》中聖人所言象數不過《啓蒙》皆引〈繫辭〉孔子之言釋之, 其言皆象數也.)”라고 하였다.⁴¹⁾ 퇴계 자신의 기술에 의하면, 그가 《啓蒙》을 연구한 것은 별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繫辭傳〉 중의 공자가 말한 象數를 이해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공자의 易學은 당연히 義理를 중시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象數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지은 大象·小象은 《易》의 象을 전문적으로 강론한 것이요, 象傳 또한 象을 강론한 것을 주로 하였으며, 〈繫辭傳〉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象數를 언급하였다. 후에 王弼은 ‘得意忘象’을 주로 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는 병폐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공자 易學의 순박함을 잃어버렸다. 퇴계가 《易》 중의 象數는 《啓蒙》에서 인용한 몇 조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그가 《啓蒙》에 열중한 것은 단지 《易》에 나타난 象數의 이해를 통하여 보다 철저히 《易》의 義理를 파악하기 위한 때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계가 《啓蒙》을 연구한 것은 단지 ‘겸하여 연구한’

40) 《退溪先生言行錄》 권6, 《全集》 제18책 p.343

41) 《溪門講義》 권4, 《全集》 제10책 p.312

것으로, 그가 중시한 것은 시종 義理였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물론 《啓蒙》을 특히 중시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啓蒙傳疑》를 지었으며, 만년에는 늘 제자들에게 《啓蒙》을 강의해 주며 “《啓蒙》은 바로 성현이卦를 두고 爻를 명명한 것을 설명하였으니(《啓蒙》一書乃聖賢畫卦命爻之說)”⁴²⁾ “실로 義理와 象數의 근원이다(實理數之原)”라고⁴³⁾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啓蒙》에 대하여 시종 분명한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제자·문인들을 독려하여 《啓蒙》을 읽게 하는 한편 또 그들로 하여금 미혹함에 빠져들지 말 것을 재삼 부탁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퇴계의 교훈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손자 安道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가 《易》을 읽은 바엔 《啓蒙》도 읽지 않으면 안된다.(汝既讀《易》，《啓蒙》不可不讀.)”라고 하였다.⁴⁴⁾ 문인의 물음에 대하여 “문인이 문기를 ‘《啓蒙》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가깝고 긴절하지 않은 듯 한 것은 어찌서 입니까?’라고 하자 선생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학자는 먼저 先儒들에게도 이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계속하여 ‘만약 이 책을 숙독하고 상세하게 음미하며, 오래도록 體會하면 눈 앞에 드러난 사물이 이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가깝고 긴절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門人問：《啓蒙》書似不親切于初學，何如？先生曰：固是。然學者不可不先知先儒有此說耳。又曰：若于此書熟讀詳味，久久實體，呈露目前事物無非這個，如何不親切!)”라고 하였다.⁴⁵⁾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자에 조정에서 시험을 명함에, 다시 《啓蒙》을 읽어보니 의심나는 뜻이 매우 많아 연구로 자못 심력을 기울인 나머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近因朝命試，再看《啓蒙》，疑義甚多，研究頗費心力，得所未得處亦多.)”라고 하였다.⁴⁶⁾ 문인들에게 《啓蒙》을 읽기를 독려하며 “樸濟가 《大學》 듣기를 청하면서 몇 일을 머물자, 《啓蒙》을 강의하고 질문하니 깨달음이 자세하고도 깊이가 있어서 선생께서 힘써 그를 도와 성취하게 하였다.(樸濟請受《大學》，留止累日，講質《啓蒙》，悟解精深，先生勉使成就.)”라고 하였다.⁴⁷⁾ 문인 중 초학자는 먼저 《계몽》을 읽지 말 것을 권고하여 “李德弘이 처음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이 《啓蒙》을 배우고자 하였다. 선생께서 ‘자네는 단지 四書를 읽을 것인 즉,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李德弘初志於學，嘗欲學《啓蒙》。先生曰：君第讀四書，此非所急也.)’”라고 하였다.⁴⁸⁾ 또한 문인들에게 《啓蒙》은 대충대충 읽어내려 가서는 안된다고 훈계하면서, “鄭士誠이 琴夾之·琴熏之·逢原

42) 《溪山記善錄》 下, 《全集》 제18책 p.482

43)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430

44) 《陶山及門諸賢錄》 권4, 《全集》 제20책 p.373

45)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430

46) 《退溪先生書節要》 권5, 《全集》 제5책 p.532

47) 《陶山及門諸賢錄》 권4, 《全集》 제20책 p.311

48) 《退溪先生言行錄》 권1, 《全集》 제18책 p.59

과 청량산 山寺에서 글을 읽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생을 뵈고 문안드리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啓蒙》을 다 읽었는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대충대충 읽어내려가서는 안된다. 趙士敬이 보이지 않을 것을 보니, 책을 읽음에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얻을 바가 있게 된다.(士誠與夾之·熏之·逢原讀書於清涼山寺, 歸路侯謁先生. 先生曰: 《啓蒙》書畢讀否? 讀書不可泛泛看過. 不見趙士敬乎, 讀書必如此, 方有所得也.)’라고 하였다.⁴⁹⁾ 《啓蒙》을 읽음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金愼仲·琴熏之·禹景善 그리고 손자 安道가 모여 함께 《啓蒙》을 읽음에 서로 더불어 연구하고 강론하여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곳을 많이 보게 되었다. 어제 비로소 끝나니 즐거웠다. 그러나 象數라는 것은 지극한 義理가 맡겨지는 곳으로서 정미하고도 오묘하나 또한 몸 밖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밤낮으로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오로지 德性을 깨닫는 공부 만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을 망치지 않음이 없으니 하물며 다른 일임에랴!(金愼仲·琴熏之·禹景善及孫兒安道, 皆會共讀《啓蒙》, 相與研究講論, 多見到前所未到處. 至昨方罷去, 可樂也. 但象數者至理所寓, 精微深妙, 亦非身外事, 然卻被日夜留心於此, 亦覺德性上工夫不能專一, 不無害事, 而況他事乎!)”라고 하였다.⁵⁰⁾

퇴계의 상술한 언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啓蒙》이 義理와 象數의 근원이요 象數學의 祖宗이니, 학자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함을 알 수 있다. 그 자신 또한 생의 후반부 동안 이 책에 쏟은 노력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啓蒙》이 학자들의 실천을 연마하는 공부에는 실제로 긴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분명하게 주의하였다. 특히 초학자들은 결코 급하게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문인제자들이 밤낮으로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을 반대하였으니, 아마 사람들이 《啓蒙》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덕성 수양에 영향을 끼칠까 몹시 걱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학자는 《啓蒙》을 배워야 하지만 단지 先儒들에게 이런 說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고 여겼다. 《啓蒙》은 數學이요 數 가운데는 본디 理가 들어있다. 그러나 數 가운데의 理는 天道로서, 결국 人道와는 거리가 있으며, 사람들이 나날이 하는 공부와는 차이가 나니, 四書의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긴절함 만 같지 못하다. 퇴계는 “차라리 성인을 배워서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기예·한 가지 행동으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며(寧學聖人而不至, 不欲以一藝一行成名.)” “학문을 논함에 반드시 성현에 근본을 두고 스스로 체득한 실질로써 참고한(論學必本於聖賢而參之以自得之實)”⁵¹⁾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啓蒙》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더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둘 수는 없었다.

49) 《退溪先生言行錄》 권1, 《全集》 제18책 p.33

50) 《退溪先生書節要》 권6, 《全集》 제6책 p.657

51) 《退溪先生言行錄》 권1, 《全集》 제18책 p.55

그는 《本義》에 대해서는 정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啓蒙》에 대해서는 도리어 늦게 읽은 데 대한 후회는 조금도 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전체적인 易學上的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를 중시하지 않은'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5. 《易》의 이치를 융합하여 실천에 이용함.

퇴계 선생은 醇儒로서, 釋迦·老莊·申不害·韓非子·管子·商鞅 등의 책이 그에게는 전적으로 異端邪說이었으며, 그것들을 배척하여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孔孟의 학문과 程朱理學의 연구에 정진하였다. 그가 공부한 차례는 즉, 먼저 《小學》을 읽고 다음으로 《大學》을 읽었으며, 다음으로 《中庸》·《論語》·《孟子》를 읽고 다음으로 '五經'을 읽는 것이었다. 《心經》 또한 반복하여 꼼꼼하게 연구한 책이었다. '五經'에 관한 저작으로는 《周易釋義》·《詩釋義》·《書釋義》가 있다. 《儀禮》·《禮記》에 대해서는 비록 전문적인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禮儀와 義理에 관통하고 깊이 연구하여 또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퇴계가 일생동안 추구한 바는 바로 性理之學이요 聖賢之學으로, 달리 다른 일에 힘쓰지 않았다.

학문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퇴계는 첫째 독서를 중시하고, 다음으로 실천을 중시하였다. 독서는 실천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실천은 독서에 근본하니 양자는 결코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까닭에 줄곧 陸象山·王陽明의 心學을 배척하였다. 《周易》을 읽는 것도 당연히 일용의 실천으로 실현되었다. 占卜의 사악하고 망녕된 술수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易》에 대해서는 반드시 義理를 깊이 연구하고 融會貫通하여 덕행의 연마와 일용의 실천 방면에 사용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퇴계가 지은 《周易釋義》는 한국말로 쓰여 있어 그 내용이 어떠한 지 필자가 이해할 수 없었다. 책 중에 간혹 《周易》의 한문 구절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이 책이 단지 64卦와 〈繫辭傳〉의 내용을 풀이한 것으로, 그 나머지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각卦에 대하여 단지 부분적인 어휘 만을 풀이하였으며 卦象을 풀이하지도 卦爻의 부호를 그려 넣지도 않았다. 卦爻辭에 대해서도 역시 겨우 일부분 만을 풀이하여, 마치 卦爻辭를 감상하였을 뿐이지 결코 象을 관찰하지는 않은 듯 하다. 卦爻辭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은 풀이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풀이하지 않았다. 이는 퇴계가 “《易》에 들어 있는 성인의 道 네가지(《易》有聖人之道四焉)” 중에⁵²⁾ “그 卦爻辭를 숭상한다(尙其辭)”는 하나의 道에 전력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周易釋義》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다른 저서 중에서 퇴계가 《易》의 義理에 대하여 적지 아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내용은 이해가 깊고 철저하여 견줄 바가 없으니, 전후로 그에 미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 시험삼아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易》을 배우면 큰 허물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退溪先生年譜》에 의하면, 선생은 68세 되는 해 9월 乙卯日에 朝講에 入侍하였다. 《論語集注》를 講하다가 “《周易》을 배우면 길하고 흥하며 사라지고 자라나는 이치와 나아가고 물러나며 존속하고 멸망하는 道에 밝게 된다.(學《易》, 則明乎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는 구절에 이르러, 그 뜻을 미루어 넓히고 啓를 올려 아뢰기길 “64괘에 義理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잠시 乾卦로써 말씀드리자면……九五爻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고, 上九爻는 지위가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귀하나 지위가 없고, 높이 있으나 백성이 없다’라고 하였고, ‘높이 오른 용이 후회가 있다’라는 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人君이 존귀하고 고상함으로 차차하여 어진이를 가벼이 여기며 스스로 성인인 체하여 혼자만의 외로운 지혜로써 세상을 다스리며,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뜻이 없으면, 이 象에 응하여 ‘곤궁한 재앙’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겸허하게 묻기를 좋아하고 덕을 같이하여 서로의 일을 도와야 만이 높이 오른 용의 재앙을 면할 것입니다. <계사전>에 이르기를 ‘위태롭다고 하는 자는 그 지위에서 편안한 자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보존하는 자이며, 어지럽다고 여기는 자는 그 다스릴 수 있는 자이다.’라고 하였고, 또 ‘망할까 망할까 하는 이는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매여 있다’라고 하였으니, 人君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가히 큰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六十四卦《易》理皆具, 姑以乾卦言之……九五飛龍在天, 上九位已亢極, 故曰: ‘貴而無位, 高而無民.’ 有 ‘亢龍有悔’之象. 人君者以崇高自處, 簡賢自聖, 獨智馭世, 無下下之意, 則應此象而有‘窮之災也’. 必須謙虛好問, 同德共濟, 乃免亢龍之災也. <繫辭>曰 ‘危者安其位者也, 亡者保其存者也, 亂者有其治者也’. 又曰 ‘其亡其亡, 繫於苞桑’, 人君知此而可以無大過矣.)”라고 하였다.⁵²⁾ 다음 해 3월 퇴계는 또 임금께 아뢰기를 “聖上께서 논의하고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혼자만의 외로운 지혜로써 세상을 다스리려는 조짐이 없지 않으시니, 識者가 미리 근심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신이 지난 번에 올린 바 乾卦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고, 높이 오른 용이 후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人君은 지극히 존귀한 자리인데 그 위에 또 자리가 있으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스스로 높이 오르코자 하여 신하와 더불어 마음을 한가지로 하려 하지도 덕을 한가지로

52) 《易·繫辭上》

53) 《退溪先生言行通錄》 권7, 《全集》 제17책 p.546

하려 하지도 않으면 어진 사람이 아래에 있어 도울 수 없을 것이니, 이른바 ‘높이 오른 용이 후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이것이 人君의 덕에 있어서 크나큰 병통입니다. 무릇 태평이 지극하면 반드시 난리가 생길 조짐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태평하다고 하여 일에 혹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배를 잡아당겨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잠깐 손을 놓은 차에 흐르는 물을 따라 아래로 떠내려가다가 풍파를 만나면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聖意故論議處事之間不無獨智馭世之漸, 識者預以爲慮, 臣前日所上乾卦 ‘飛龍在天’ 之上又有 ‘亢龍有悔’ 之言. 夫 ‘飛龍在天’ 乃人主極尊之位, 其上又有一位, 則過高矣, 故過自高亢, 不肯與臣下同德, 則賢人在下位而無輔, 所謂 ‘亢龍有悔’ 也 …… 此君德之大病. 夫太平極則必有生亂之漸, 今時則然, 事或有所誤則如挽舟逆水而上, 一放手之頃, 從流而下, 遇風波而覆也.)”라고 하였다.⁵⁴⁾ 《論語·述而》편에서 공자께서 “권살에 《周易》을 배우면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라고 하였는데, 朱子の 《論語集注》에는 “《周易》을 배우면 길하고 흉하며 사라지고 자라나는 이치와 나아가고 물러나며 존속하고 멸망하는 道에 밝게 되니, 그런 까닭에 큰 허물이 없을 수 있다. (學易, 則明乎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故可以無大過.)”라고 하였다. 퇴계는 《周易》이 허물을 적게 해주는 책이라는 이치를 완전하게 이해하였던 것이다. 人君의 재앙은 본래 하늘의 道로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을 때에는 바뀔 수 있으니, 만약 사람이 하늘의 도에 밝아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人君의 재앙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퇴계는 “운명이 사물에 있을 때는 바뀔 수 없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 또한 바뀔 수 있는 이치가 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뒤에야 운명에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孟子에게 正命·非正命의 의론이 있게 되었다. (命之在物固不可易, 其在人也有可易之理, 至盡其道而不免, 然後可以委之於命. 故孟子有正命非正命之論.)”라고 하였다.⁵⁵⁾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運命이 천지 사이에 있을 때에는 바뀔 수 없는데 사람에게 있으면 바뀔 수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하자, 퇴계는 “天地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운명에 맡기지만, 人道는 善을 쌓아서 하늘에 되돌린다. (天地無爲而任運, 人道積善以回天.)”라고 대답하였다.⁵⁶⁾ 이는 곧 핵심문제상에 있어서 일체의 象數學과 명백한 경계선을 그은 것이라 하겠다.

② 때의 사정에 들어맞음(時中)에 관하여.

《易》은 時中을 귀하게 여기니, 퇴계의 《易》에 나타난 時中의 뜻에 대한 體

54) 《退溪先生言行通錄》 권7, 《全集》 제17책 p.567

55)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141

56)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142

會는 지극히 깊다. 判書 閔箕의 편지에 답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감에 나아가는 것을 공경으로 삼고, 나아갈 수 없으면 나아가지 않음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공경으로 삼습니다. 할 수 있는 所在가 바로 공경함의 所在입니다.(可進而進, 以進爲恭; 可不進而進, 以不進爲恭. 可之所在即恭之所在.)”라고 하니, 丁若鏞이 《陶山私淑錄》에서 평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맹자께서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 같이는 못하니, 할 수 있는 所在가 바로 공경함의 所在입니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時中의 뜻이니, 헤아림이 지극히 정미로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일생동안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 것이다.(此如孟子所云 ‘莫如我敬王也, 可之所在即恭之所在’ 一語. 此正君子時中之義, 秤量至精, 移易不得, 一生當念念不忘者也.)”라고 하였다.⁵⁷⁾

퇴계는 자신의 평생동안의 나아가고 물러난 경험을 바탕으로 “무릇 제가 古人의 道에 부합하기를 구하는 까닭은 언제나 벼슬을 내놓고 물러날 때는 들어맞지만 번번히 벼슬길로 나아가갈 때는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魯나라 男子가 말한 바 ‘나의 할 수 없음으로써 柳下惠의 할 수 있음을 배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義의 소재는 때와 사람에 따라 변화하여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나아가는 것이 義가 되지만, 그것을 내가 하는 바가 되게 하고자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으면 물러나는 것이 義가 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바가 되게 하고자 한다면 역시 옳지 않습니다.(凡滉所以求合於古人之道者, 恒由於退身而輒乖於致身. 正如魯男子所謂以吾之不可學柳下惠之可, 豈不然哉! 蓋義之所在, 隨時隨人變動不居. 在諸公則進爲義, 欲使之爲我所爲, 不可也. 在我則退爲義, 欲使之爲諸公所爲, 亦不可也.)”라고 하였다.⁵⁸⁾

퇴계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무릇 일이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러 적절한 도리가 없게 되면 부득이 次善을 택하여 따라야 하니, 權道가 되는 것은 역시 이 때에 마땅히 그쳐야 할 곳이다.(凡事到無可奈何處, 無恰好道理, 則不得已擇其次者而從之, 乃所爲權, 亦此時所當止之處也.)”라고 하였다.⁵⁹⁾

퇴계는 또 말하기를 “무릇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으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때에 따라 변화함으로 몸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凡吾之顯晦語默不可不隨時消息以善身也.)”라고 하고,⁶⁰⁾ 또 “堯舜 시절의 임금과 백성은 비록 군자를 지향하지만 어찌 때를 헤아리지 않고 힘을 헤아리지 않고서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堯舜君民雖君子之志, 豈有不度時不量力而可以有爲者乎!)”

57) 丁若鏞 《陶山私淑錄》, 《全集》 제23책 p.109

58) 《退溪先生書節要》 권4, 《全集》 제5책 p.408

59) 《李子粹語》 권3, 《全集》 제7책

60) 《李子粹語》 권3, 《全集》 제7책 p.338

라고 하였으며,⁶¹⁾ 또 임금의 물음에 답하여 말하기를 “《易》의 도는 줄어들고 불어나며 가득 차고 텅비는 이치와 나아가고 물러나며 말하고 침묵하는 기들에 밝아서 時中을 잃지 않습니다.”(《易》之道明消長盈虛之理, 進退語默之機, 不失乎時中也.)라고 하였다.⁶²⁾

〈繫辭下〉에서 “일정한 法式이 될 수 없고, 오직 변화하는 것만이 적당한 것이다.(不可爲典要, 唯變所適.)”라고 하였고, 《論語·微子》에서 “할 수 있음도 없고 할 수 없음도 없다.(無可無不可.)”라고 하였으며, 《孟子·離婁下》에서 “오직 義가 있는 바(唯義所在.)”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易》의 時中의 뜻으로서, 퇴계의 체득하여 깨달음은 가이 지극히 精微한 것으로, 나아가 몸소 그것을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屈伸에 관하여.

《易》에서는 천하의 줄어들고 불어남과 가득차고 텅빔은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현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가는 것이 바로 구부림[屈]이요, 오는 것이 바로 펴[伸]이다. 따라서 가고 오며 구부리고 펴는 것은 하늘의 道이다. 퇴계는 이 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제가 전에는 기운이 흩어지면 없어진다고 여겼는데 근자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또한 치우친 것이지만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저 음양의 가고 오며, 줄어들고 불어남은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르게 되면 퍼지고 다시 구부러지는 것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 즉, 퍼지면 구부러짐으로 돌아가고, 퍼진 나머지의 것은 갑작스레 다하지 않으며, 마땅히 점차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지면 없음[無]에 이르게 되고 구부러진 나머지의 것은 갑작스레 없어지지 않으니 어찌 점차로 하지 않겠습니까?”(混前以爲氣散即無, 近來細思, 此亦偏而未盡, 凡陰陽往來消長莫不有漸, 至而伸反而屈皆然也. 然則既伸而反於屈, 其伸之餘者不應頓盡, 當以漸也. 既屈而至於無, 其屈之餘者不應頓無, 豈不以漸乎!)라고 하였다.⁶³⁾ 《易》의 往來·屈伸의 道를 깨달았음 뿐 만 아니라 往來·屈伸의 상태로 轉化하는 사이에 점차 변화하는 과정—점차 변화한 뒤에 또한 계승이 존재한다는 관계까지 인식하였으니 즉, 구부림[屈]이 펴[伸]으로 변하니 펴[伸] 가운데 구부림[屈]이 들어 있고, 펴[伸]이 구부림[屈]으로 변하니 구부림[屈] 가운데 역시 펴[伸]이 들어 있다. 감[往]과 음[來], 구부림[屈]과 펴[伸]은 서로 轉化하지만 명확하게 매듭지을 수는 없다. 퇴계의 이 문제에 대한 탁월한 견해는 옛 사람에게는 일찍이 없는 것이었다.

61) 《李子粹語》 권3, 《全集》 제7책 p.33

62) 《陶山及門諸賢錄》 권3, 《全集》 제20책 p.280

63) 《退溪先生書節要》 권3, 《全集》 제4책 p.96

④ 謙虛에 관하여.

《易》은 겸손[謙]을 귀하게 여기니, 그런 까닭에 謙卦는 여섯 爻가 모두 吉하다. 퇴계는 謙의 도리를 철저히 이해하여 평생 동안 사람됨과 학문함 그리고 관리가 되는데 있어서 謙을 최상으로 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더 《易》의 이치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 아주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李仲久에게 답한 편지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으니 모두 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포부를 알아주지 않음을 탄식하지만 저는 나의 空疏함을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합니다.(人有恒言皆曰世不我知, 某亦有此嘆. 然人則嘆不知其抱負, 某則恨不知其空疏.)”라고 하였는데, 丁若鏞은 《陶山私淑錄》에서 평하기를 “이는 선생께 있어서는 실로 겸손의 말이다. …… 오오라! 선생께서는 天地를 다스리는 학문으로 지난 것을 잊고 다가올 것을 열었으나, 당시 조정의 제공들은 아직도 師門의 바깥에서 宗廟百官의 성대함을 한 들도 엿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오히려 空疏함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하지 않았다. 겸손한 군자여! 선생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까!(此在先生實謙挹之辭也 …… 嗟夫先生以經天緯地之學, 繼往開來之業, 當時在朝諸公猶夫在門牆之外, 其宗廟百官之盛宜不能窺其一二, 而先生猶以空疏自處而不恨其不知抱負, 謙謙君子, 微先生吾誰與歸!)”라고 하였다.⁶⁴⁾ 더욱 퇴계의 ‘謙謙君子’의 풍모를 보여주는 두가지 사실이 있으니 즉, 하나는 南冥 曹植의 비꼬는 투의 비판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다. 曹植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근자에 학자들을 보아하니, 손으로 물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天理를 말하여, 이름을 훔쳐 남을 속이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입게 되어 폐해가 다른 사람에까지 미치는 지경입니다. 어찌 선생 같은 나이들고 덕이 높으신 분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近見學者手不知灑掃之節而口談天理, 計欲盜名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而害及他人, 豈非先生長老無有以訶止之故耶!)”라고 하자, 퇴계는 鄭子中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남명의 말은 참으로 우리들이 경계로 삼을 만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청컨대 각자 더욱 마음을 다잡고 힘써, 몸소 실천함으로써 입으로 天理를 이야기하는 근본으로 삼고, 나날이 연구하고 체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知·행이 함께 나아가고 言·행이 서로 보살핌으로써, 聖門에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 뛰어난 선비의 꾸지람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南冥之言眞可謂爲吾輩藥石之言, 自今, 請各更加策勵, 以反躬實踐爲口談天理之本, 而日事研窮體驗之功, 庶幾知行兩進, 言行相顧, 不得罪於聖門而免受訶於高世之士矣.)”라고 하였다.⁶⁵⁾ 다른 하나는 수년간

64) 丁若鏞 《陶山私淑錄》, 《全集》 제23책 p.119

奇大升(1527~1572)과 四端七情論을 전개하면서 각자 자신의 견해를 견지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 곧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奇大升에게 보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간절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易》의 겸손의 도리를 깊이 체득하고 德性의 실천에 절실하게 응용하였으니, 이는 위대한 賢人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일반 학자들은 실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門人 曹好益은, “근자에 諸公들을 보니, 퇴계를 칭찬하여 모두 朱子를 배웠다고 말하나 기실 먼저 顏子를 배웠으니 그 타고난 성품이 비슷하다.(近見諸公稱退溪皆說學朱子, 其實先學顏子, 其資稟蓋相似.)”라고 하였다.⁶⁵⁾ 퇴계는 허물을 들으면 기뻐하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은 賢人의 氣象을 지녔으니 확실히 顏子와 비슷하다 하겠다.

⑤ 利에 관하여.

퇴계는 《易》의 利字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분석하였다. 그는 黃仲舉의 편지에 답하여 말하기를 “利의 근본으로부터 말하면, 利는 義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善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를테면 《周易》에서 利와 不利를 말하고 《尚書》에서 利用의 종류를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로움에 대하여 말하면, 군자에게 있으면 마음에 해를 끼치는 바가 있고, 못사람들에게 있으면 이기심과 탐욕의 구렁텅이가 되니 천하의 惡이 모두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利의 해석이 상황에 따라 같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自利之本而言之, 利者義之和, 非有不善, 如《易》言利不利, 《書》言利用之類是也. 自人之爲利而言之, 在君子則爲心有所爲之害, 在衆人則爲私己貪欲之坑塹, 天下之惡皆生於此. 利之爲言, 隨處不同如此.)”라고 하였다.⁶⁶⁾ 재차 黃仲舉의 편지에 답하여 말하기를 “무릇 利字의 뜻은 그 근본을 좇아서 말하면 단지 편리하고 유익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군자가 義로써 일을 처리함에 일찍이 편리하고 유익함을 따르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利는 義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天理를 좇아서 말하면 利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利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利를 人欲으로 여기면 天理 가운데 조금도 볼 수 없게 되니 어찌하여 ‘義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까? 대개 여기의 利 자는 보통의 利 자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蓋利字之義, 循其本而言, 只是順遂便益之名. 君子之處事以義, 未嘗不順遂便益, 故曰 ‘利者義之和’, 如云循天理則不求利而自無不利者是也. 若以利爲人欲, 則天理中一毫看不得, 何云 ‘義之和’ 耶! 大抵此利字與尋常利字迥然不同.)”라고 하였다.⁶⁷⁾ 利는 이른

65) 《退溪先生書節要》 권6, 《全集》 제6책 p.647

66) 《陶山及門諸賢錄》 권3, 《全集》 제20책 p.286

67) 《退陶先生自省錄》 권1, 《全集》 제4책 p.96

68) 《退陶先生自省錄》 권1, 《全集》 제4책 p.108

바 人欲이 아니며 天理와 결코 저촉되지도 않는다. 퇴계가 이와 같이 利字의 뜻을 풀이한 것은 《易》의 “利는 義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利者義之和也)”라고 한 뜻과 부합하니, 宋人의 해석보다 뛰어나다.

상술한 다섯 가지 예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퇴계는 《易》의 이치를 매우 깊고도 자세하게 體悟하고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해하여 수시로 집어내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數를 추론하는 邵雍 일파와는 크게 다르며 程頤에 가깝다고 하겠다. 《荀子·大略》에 “《易》에 밝은 사람은 점을 치지 않는다.(善爲《易》者不占.)”라고 하였으니, 퇴계는 바로 《易》에 밝은 사람이었다. 孟子는 《易》에 정통하였지만 《易》을 말하지 않았다. 퇴계는 《易》을 말하였으니 孟子와는 다르다. 그러나 일상의 실천에 《易》을 사용한 수준은 孟子보다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6. 太極은 理요 陰陽은 氣이며, 理가 먼저이고 氣는 나중임.

《繫辭上》에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宇宙의 본체론적 의의를 담고 있으며, 역대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공자 이후로 宋人 이전에 이르기까지 太極을 議論한 자들은 모두 氣로써 말하였다. 《老子》에서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는다. 셋은 만물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라고 하였고, 《莊子》에서는 道가 太極의 앞에 있다고 말하였다. 道가 하나를 낳고 또 道가 太極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하나[一]와 太極은 道가 아니다. 太極이 하나[一]와 같다면 太極이란 혼돈하여 우주 만물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룬다. 許慎의 《說文解字》에는 첫 번째 글자인 ‘一’ 아래에 “태초에 태극이 있었고, 道는 하나에서 세워졌으며, 처음에 天地를 나누고, 변화하여 萬物을 형성한다.(惟初太極,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成萬物.)”라고 하여, 역시 太極과 하나[一]란 천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기 전의 혼돈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太極과 하나[一]는 확실히 氣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宋代에 이르자 周敦頤(1017~1073)는 太極圖를 그리고 《太極圖說》을 지어 “(천지간에 아직 만물이 생기기 전의 시초가 太極이다(無極而太極))”라고 하였다. 朱子는 周敦頤의 학설을 발양하여 太極은 理요 陰陽은 氣라고 인정하였다. 理와 氣의 관계에 대하여 朱子の 《太極圖說注》에서는 “앞에서 그것을 밀지만 그 처음이 합쳐짐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것을 당기지만 그 마지막이 분리됨을 보지 못한다.(推之於前, 而不見其始之合; 引之於後, 而不見其終之離也.)”라고 하였으

니,⁶⁹⁾ 즉 理와 氣는 한덩어리로 뒤섞여 이루어져 있지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한덩어리로 뒤섞여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理와 氣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理와 氣가 “두가지 사물로 나누어져(洪是二物)”⁷⁰⁾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또한 이른바 “그 처음이 합쳐짐을 보지 못한다(而不見其始之合)”는 것이다. 서로 뒤섞이지 않아서 “그 처음이 합쳐짐을 보지 못하는(而不見其始之合)” 까닭에 理와 氣 그리고 太極과 陰陽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에 관련된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 朱子가 말하기를 “(먼저 天地가 있지 않았으니, 결국 또한 먼저 이러한 理가 있고서 곧 이러한 天地가 있게 되었다.(未有天地之先, 畢竟也只是先有此理, 便有此天地.)”라고 하였고,⁷¹⁾ 또한 “만약 근본을 말한다면, 곧 理가 있고 나서 氣가 있게 되었다.(若論本原, 卽有理然後有氣.)”라고 하였으며,⁷²⁾ 또한 “太極은 단지 천지만물의 理이다.(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라고 하였고,⁷³⁾ 또한 “그 근본을 미루어보면, 太極이 陰陽을 낳는다.(推其本, 則太極生陰陽.)”라고 하였으니,⁷⁴⁾ 바로 太極이 理요 陰陽은 氣이다. 타고난 성품으로 말하면, 太極과 陰陽은 나눌 수도 없고 先後도 없다. 그러나 근본으로 말하면, 먼저 太極이 있고 나중에 陰陽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朱子의 기본 관점이다.

퇴계는 당시 다른 몇몇 대학자 이를테면 奇大升·李栗谷(1536~1584)·李一齋(1499~1576)·成浩原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태극과 음양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朱子의 관점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각자는 이해 측면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李一齋는 태극과 음양은 분리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道(추상적 도리)와 器[구체적 사물]는 비록 위아래의 구분이 있지만 太極·兩儀·上下·精粗는 圓融하여 끝이 없으며 하나의 몸체가 되는 것이다.(道器雖有上下之分, 然其太極兩儀上下精粗是圓融無際而爲一體者也)”라고 하여,⁷⁵⁾ “理와 氣를 지나치게 심하게 나눌 수(分理氣太甚)” 없으며,⁷⁶⁾ 理와 氣란 “무릇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蓋一而二, 二而一者也)”라고 여겼다.⁷⁷⁾ 이러한 견해는 朱子와 다르지 않지만, 단지 태극이 理와 氣를 겸하고 있다고 하고, 氣가 理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69) 《周子全書》上 p.7, 商務印書館 《萬有文庫》, 1937년 초판.

70) 《朱子文集》 권46, 錢穆《朱子新學案》 제1책 p.247 인용.

71) 《朱子語類》 권1,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40 인용.

72) 《朱子文集》 권59, 錢穆《朱子新學案》 제1책 p.242 인용.

73) 《朱子語類》 권1,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63 인용.

74) 《朱子語類》 권75, 錢穆《朱子新學案》 제4책 p.264 인용.

75) 《兩先生往復書》 권1, 《全集》 제8책 p.51

76) 《兩先生往復書》 권1, 《全集》 제8책 p.52

77) 《兩先生往復書》 권1, 《全集》 제8책 p.52

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 점이 바로 朱子와 다른 것이다. 奇大升은 “천지만물의 理를 들어 태극이라고 이름하니, 이른바 태극이란 단지 理이지 氣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舉天地萬物之理而名之曰太極, 則所謂太極者只是理而不涉乎氣者也.)”라고 하니⁷⁸⁾ 朱子의 학설과 완전히 일치한다.

李栗谷 또한 태극이 理요 음양이 氣라는 것을 긍정하였으니 이 점은 朱子의 관점과 같다. 그러나 氣가 離合이 없다고 강조한 점은 朱子와 크게 다르다. 그가 말하기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氣요 드러나는 것은 理이다. 氣가 아니면 드러나게 할 수 없고, 理가 아니면 드러나는 것이 없다 (自注: 이 23字는 성인께서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理와 氣는 混融하여 본래부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 離合이 있으면 動靜에 단서가 있고 陰陽에 시작이 있게 된다. 理는 태극이요 氣는 음양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함께 움직인다고 하니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태극과 음양은 함께 움직일 수가 없는데 理와 氣가 함께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틀리지 않겠는가?(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自注: 此二十三字, 聖人復起, 不易斯言). 理氣混融元不相離, 若有離合, 則動靜有端, 陰陽有始矣. 理者太極也, 氣者陰陽也. 今日太極與陰陽互動則不成說話; 太極陰陽不能互動, 則謂理氣互發者, 豈不謬哉!)”라고 하였다.⁷⁹⁾ “이것이 兩儀를 낳는다(是生兩儀)”에 대해서도 그는 말하기를 “前天地가 이미 소멸한 후에는 태극이 쓸쓸하고 고요하여 단지 陰의 상태일 뿐이니, 태극이 陰에 있다. 後天地가 장차 열리면 하나의 陽이 처음 생겨나니 태극이 陽에 있다.(前天地既滅之後, 太極寂然, 只陰而已, 則太極在陰. 後天地將辟, 一陽肇生, 則太極在陽.)”라고 하고, 또 “대저 음양의 두 끝은 끊임없이 순환하니 태극이 들어있지 않음이 없다. 이 태극이 온갖 변화의 중심이 되고 온갖 사물의 근본이 된다.(大抵陰陽兩端循環不已, 而太極無不在焉. 此太極所以爲萬化之樞紐, 萬品之根柢也.)”라고 하였다.⁸⁰⁾ 그 의미는 즉, 음양은 시작이 없고 옛날부터 존재하였으며, 태극은 음양의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먼저 태극이 있는 연후에 음양이 생겨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율곡의 이러한 사상은 실제로 唯氣論 즉, 唯物論과 아주 가깝다.

퇴계의 관점은 율곡과 같지 않다. 그의 태극과 음양에 관한 관점은 朱子와 완전히 일치하니, 정말로 섞임이 없이 조금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는 朱子의 ‘理와 氣는 離合이 있다’는 학설을 견지하면서 理와 氣는 두 가지 사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감정도 없고 뜻도 없는 것이 본연의 본체요, 드러날 수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 지극히 오묘한 작용이다. 理에는 자체로 작용

78) 《兩先生往復書》 권1, 《全集》 제8책 p.54

79) 《栗谷年譜上》, 《栗谷全集二》, p.292.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년 제5판.

80) 《栗谷年譜上》, 《栗谷全集二》, p.305

이 있으니 그런 까닭에 자연히 陽을 낳고 陰을 낳는다.”(無情無意，本然之體，能發能生，至妙之用，理自有用，故自然而生陽生陰也.)라고 하였다.⁸¹⁾ 퇴계는 太極[理]은 순수한 것으로서 “지극히 텅비고 지극히 짙 차며, 지극히 없고 지극히 있으며,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고요하지 않으며, 淨潔하여 털끝만큼도 보탬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다. 능히 음양오행과 만물만사의 근본이 될 수 있지만 음양오행과 만물만사의 가운데 얽매이지는 않는다. 어찌 잡된 氣가 있다고 하여 一體로 여기고 一物로 간주하리오!(至虛而至實，至無而至有，動而無動，靜而無靜，潔潔淨淨地一毫添不得一毫減不得，能爲陰陽五行萬物萬事之本，而不囿於陰陽五行萬物萬事之中，安有雜氣而認爲一體看作一物耶!)”라고 하였다.⁸²⁾ 태극과 음양이 두 가지 사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엔, 본원으로 말하자면 음양[氣]은 태극[理]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인정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理와 氣가 본래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太極이 곧 兩儀인데 어찌 낳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周子は ‘태극이 움직여 陽을 낳고, 고요하여 陰을 낳는다’라고 하고, 또 ‘無極의 진실함과 음양오행의 精微함이 오묘하게 합쳐져서 영긴다’라고 말하였다. ‘진실하다’고 하고 ‘정미하다’고 하여 두가지의 사물로 여겼기 때문에 ‘오묘하게 합쳐져서 영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하나의 사물이라면 어찌 ‘오묘하게 합쳐져서 영긴다’라는 것이 있겠는가?(孔子曰 ‘易有太極，是生兩儀’，若曰理氣本一物，則太極即是兩儀，安有能生者乎! 周子曰 ‘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又曰 ‘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曰眞曰精，以其二物，故曰 ‘妙合而凝’，如其一物，寧有 ‘妙合而凝者乎!’)”라고 하였다.⁸³⁾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극과 음양의 문제에 있어서 퇴계는 줄곧 周敦頤의 《太極圖說》로써 학설을 삼는 朱子를 좇아, 태극은 理요 음양은 氣이며 理와 氣는 두 가지 사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서 이 둘은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뒤섞이지도 않는다고 힘써 주장하였는데, 특히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서로 뒤섞이지 않은 까닭에 理가 먼저요 氣가 나중이며, 太極이 먼저 있고 후에 陰陽이 생겨난 것이다.

7. 결 론

세계적인 학자 退溪 李滉 선생은 그 영향이 깊고도 커서 보통이 아니다. 趙憲

81)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129

82) 《李子粹語》 권2, 《全集》 제7책 p.186

83) 《李子粹語》 권1, 《全集》 제7책 p.133

은 《請四賢從祀疏》에서 “이황은 海東의 儒學을 집대성하였고, 주자의 嫡統을 이었으며(李滉集東儒之大成, 紹朱子之嫡統)” “착한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우러러 사모하며, 악한 사람은 그의 풍모를 우러보고 저절로 그만두게 됩니다. 요즘의 선비들 중 점차 임금을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며, 예의와 염치를 지니게 된 자들이 늘어난 것은 모두 그의 덕망에 감화되어 일어난 때문입니다. (善者聞言而景慕, 惡者望風而自戢. 當今之士, 稍加尊君愛親而有禮義廉耻者皆薰其德而興起者也)”라고 하였다.⁸⁴⁾ 李植(1584~1647)은 “주자 이후로 학자들의 저술이 매우 많아졌으나 대부분 화려한 문사로 꾸며져서 읽어내려가면 사람들의 생각을 아득하고 들뜨게 하여 啓悟함을 보기 어렵다. 오직 許衡의 글 만이 程朱에 가깝지만 그러나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다. 만약 《退溪集》으로써 주자의 뒤를 잇는다면 비록 眞德秀라 하더라도 그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무릇 마음으로 체득한 말과 들은 것을 그대로 알리기만 하는 천박한 학문과는 같지 않으니 독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한다.(自朱子以後, 學者著述甚多, 率以文華潤色, 讀之使人意思悠泛, 少見啓悟, 唯許魯齋(衡)立言近於程朱而不多傳, 若以《退溪集》繼之朱子之後, 則雖眞西山(德秀)無以過之. 夫心得之言與口耳不同, 讀者當自知之)”라고 하였다.⁸⁵⁾ 權相一의 《觀書錄》에 이르기를 “선생의 명성이 오랑캐에까지 미쳤고, 《문집》 또한 다른 나라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일본에서 이른바 弘文學士林恕가 《二程治教錄》을 짓고 跋文에서 ‘조선의 이퇴계 또한 그것을 말하였으니’라고 하니(老先生聲名施及蠻貊異類, 《文集》亦入於他國. 日本所謂弘文學士林恕作《二程治教錄》跋有曰 ‘朝鮮李退溪亦言之’云云.)”라고 하였고,⁸⁶⁾ 또 “(退溪新刊《文集》於大阪城, 字體精好, 家誦而戶講之. 諸生輩筆談問目, 必以《退溪集》中語爲第一義.)”라고 하였다.⁸⁷⁾ 栗谷 李珥는 “선생은 世儒의 祖宗이다. 趙光祖(1482~1647) 이후로 전출만 한 자가 없었다. 그는 재주와 재능이 혹 靜庵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義理를 깊이 궁구하는데 있어서는 精微함을 다하였으니 또한 靜庵이 미칠 바가 아니었다.(先生爲世儒宗. 趙靜庵(光祖)之後無與爲比. 其才調器局或不及靜庵, 至於深究義理, 以盡精微, 則又非靜庵所及矣.)”라고 하였다.⁸⁸⁾

퇴계는 일생동안 “성인을 배워서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행동으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며(寧學聖人而不至, 不欲以一藝一行成名)” 학문의 중점은 ‘四書’와 《心經》에 있었는데, 중점 중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문 연구에 힘을 쏟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

84)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557

85)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541

86)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541

87) 《退溪先生年譜補遺》, 《全集》 제19책 p.541

88) 《退溪先生言行錄》 권6, 《全集》 제18책 p.349

러나 易學 공부도 아주 깊이가 있어서, 지극히 무르익고 지극히 精微하였다. 그의 易學의 연원을 말한다면 周敦頤·邵康節·程頤·朱熹의 것을 모두 계승하였는데, 이 네 명의 大儒 중에 그는 특히 程子和 朱子를 중시하였다. 정자와 주자는 모두 《易》의 義理를 중시하였다. 그런 까닭에 퇴계 역시 《易》의 義理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程頤는 특히 義理를 중시하고 象數에 대해서는 잊지 않을 뿐이었으며, 朱子는 義理를 주장하고 象數에 대해서도 겸하여 자못 마음을 두었다. 퇴계는 義理를 주장하였지만 象數에 대해서도 역시 힘써 연구검토하였다. 그러나 결코 깊이 빠져들지 않았으며, 卜筮 같은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 보건대, 퇴계의 易學은 朱子를 계승하였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程頤를 더 많이 닮았다고 하는 편이 낫다. 따라서 퇴계는 義理派 易學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